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10월 29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50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은혜와진리교회에 소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며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 최 이 화 -

할렐루야!

저는 은혜와진리교회 영등포성전에서 주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구역장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언니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직장생활을 했던 남편이 저와 결혼하자마자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설계 일을 했던 경력을 활용하여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설계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처음에 직원 5명을 두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편과 직원들이 함께 성실하게 일하자 점차 일거리가 늘고 사무실 직원도 점점 늘어나 20명이 되었습니다. 결혼 초 월세방에서 살림을 시작하여 전셋집에 살다가 드디어 내 집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큰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0년 말부터 남편의 설계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일감은 줄어드는데 직원들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는 계속 지출해야 했기에 시간이 지나자 그동안 모아 두었던 운영자금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직종에 반평생을 몸담았던 남편은 미련이 남아서 사업을 접지 못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저의 간곡한 권유에 남편은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슈퍼를 운영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 끝에 빛을 얻어 슈퍼를 차렸습니다.

기대한 이상으로 손님이 많았고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문을 열어야 하는 슈퍼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일만 했던 저희 부부에게 슈퍼 일은 중노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슈퍼를 운영한 지 1년쯤 되자 남편은 어깨석회염증에 족저근막염까지 생기고, 저도 자궁 쪽에 아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승용차로 먼저 나가서 가게 문을 열고, 저는 나중에 버스를 타고 가게를 다녔는데, 저는 버스 안에서 “하나님! 남편도 저도 병이 생기고 몸이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사무실을 운영할 때 일감을 수주하여 납품한 적이 있었던 모 대기업의 간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설계 분야 경력직을 채용하는데 남편이 그 일을 오래 했으니 지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남편이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섭리해 주신 까닭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회사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년이 넘은 나이임에도 그동안 쌓은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직장생활과 아이들의 학교 문제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전에 살았던 곳으로 멀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생활이 해이해지는 것이 느껴지고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기 위해 집 근처 여러 교회를 나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고 교인들이 바른 신앙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갈급하고 답답하여 하나님께 울며 며칠을 기도하던 어느 날, ‘이지성 작가’의 강의를 듣는 중에 기독교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이 “이 시대에 은혜와진리교회와 같은 교회가 많고 조용목 목사님처럼 성경적으로 목회하시는 참된 교회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래, 바로 이 교회야’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주에 은혜와진리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교회에 나오자마자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용목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하여 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말씀에 대한 이해와 신령한 지식의 깊이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대교구장님과 권사님이 심방을 오셨는데, 교회 봉사와 관련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을 안내하는 봉사를 권유하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와 같은 봉사를 하고 싶었던 터라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성심성의껏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항상 기도하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귀한 구역장 직분까지 주셔서 구령과 구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오랜 기간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였는데 시험 합격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기도가 부족했나 싶어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딸은 세무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다가 진로를 바꿔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드디어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것도 국가공무원 시험과 지방공무원 시험 모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딸과 우리 가정에 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지러운 시국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저를 은혜와진리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조용목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며 충만한 사명감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길1길 25 (삼동) T.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30 T.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정로102번길 56(남양리) T.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내당동) T.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석림동) T.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천천동) T.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채운동) T.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보람동) T.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운산동) T.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성계리) T.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길1길 25 (삼동) T.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구역공과 제1권 (제3단원 :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제20과) 부활하신 예수님

- 본문 : 요한복음 20:1-10
- 요절 :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요 20:29)
- 찬송 : 159장(새찬송가 161장), 340장(새찬송가 542장)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인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위대한 소망을 안겨줍니다(고전 15:22).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이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히 11:19).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에게 부활을 보장해 주는 불변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 자신이 부활이 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요 11장). 예수님은 나사로가 소생할 것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신 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일은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모든 성도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성도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살펴봄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키워나가도록 하십시오.

1. 예수님께서 평소애 행하신 기적이 그의 부활을 입증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낮아지셨으며 또 가장 수치스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본다면 죽음이 결코 예수님의 종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아이로의 죽은 딸이나 나인 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것이라든지, 죽은지 나흘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철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신성(神性)을 생각할 때에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는 깨닫기 힘든 표현을 쓰셨지만, 나중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인자는 제삼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6:21, 17:23).

예수님은 우리들과 같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시며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삶을 사셨습니다. 만약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진실성은 파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진리가 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2.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의 부활을 입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고 난 다음 무덤에 묻힙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의 무덤은 귀한 돌로 단장되어 세월이 흐르더라도 그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그 무덤은 텅 비고 말았습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갔다고 하지만, 그 무덤은 큰 돌로 봉해져 있었고, 그 앞에 로마 군수들이 지키고 있었으므로 그 말은 사실상 터무니없는 억측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자기들의 목

숨을 건지기 위하여 스승을 버리고 빨빨이 도망했던 제자들이 죽은 스승의 시체를 위하여 목숨을 건 모험을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비밀에 대하여 깨달은 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전 15:51,52)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가 무덤에서 나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됨으로 수많은 무덤이 비게 될 것입니다.

3. 예수님께서 부활 후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신 사실이 그의 부활을 입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빈 무덤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적어도 11번 이상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사로처럼 대중이 다 볼 수 있게 살아나신 것은 아닙니다. 나타나시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증인으로 선택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행 10:40,41).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제자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굳센 확신과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가까이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했기 때문이요, 이 사실은 세계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본 제자들에 의하여 초대 교회가 세워졌으며 여기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좌절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능력 있는 복음의 역군이 된 것처럼,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동일한 능력을 받아 복음의 역군이 되는 것입니다.

4. 성도의 체험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제자들과 여인들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환상 체험이였다면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끼친 영향력이 점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은 성도들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중단되고 난 후에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지 못했던 자들도, 나타나심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동력있는 부활 신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빌 3:10-12)는 고백을 통해 현재 자신이 가진 신앙의 근거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관한 지식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이 됩니다. 또한 성도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힘있고 확신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 각 나라별 선교회

구분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담당성전	안양,산본,포일,부곡	수원,영통,진위,전원,동탄,안중,평택,용인,남양,울진,전주효자	안산,시화,시흥,인천,부천,부평,영종도	과천,판교,강남,구리,광주	광명,영등포,원주,천안	일산,김포,강유,전주평화	수원,양주,서산,당진	수원,대구,세종
연락처	T:031-448-1793 T:031-443-3731~2 (구내 112) C.P:010-4564-7539	C.P:010-5358-1233	T:031-487-1793 T:031-487-1397 C.P:010-5018-3686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T:02-894-3731 C.P:010-8277-2944	T:031-906-3731 C.P:010-5335-7050	C.P:010-5358-1233	C.P:010-5358-1233
성가단	그리스 앤 트루스 미션콤파이어							

◆ 주요선교업무

- IMCR (International Ministries & Church Revival Conference: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회의) 세미나 개최 및 회보 발행
- 문서, 방송선교 지원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 세계선교연합회 소식지 발간
- 각 지역 선교센터 설립 운영 지원
-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교회 해외 선교행사시 동참
- 당회장 목사님의 외국어 설교집 발간
- 본교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홍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